

외현적 ·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상호매개효과: APIMeM의 적용*

이 성 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상호 의존적인 커플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변인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APIMeM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263쌍의 부부를 모집하여 자기 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145), 연애대상평가척도(MALPS), 결혼만족도 척도(MSD)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내의 내현적 자기애가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보다 유의하게 높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결혼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아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결혼 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 자기효과만이 확인되었으나,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아내의 결혼 만족도와 남편의 결혼 만족도 둘 다를 저하시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 평가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모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아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평가가 낮아져 아내의 결혼만족도도 감소하는 바, 배우자평가를 통한 매개효과도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내의 내현적 자기애도 직접 효과에서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모두 유의하였으나 배우자평가의 매개효과는 남편의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하여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저하되는 상대방 효과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결혼 만족도, 배우자평가, APIMeM

* 본 연구는 제1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이영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FAX: 02-2164-4276 / E-mail: yhlee@catholic.ac.kr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혼인률은 2018년보다 7.2% 감소하였고 118,000쌍이 이혼하여 2018년에 비해 이혼율이 2% 증가하였다고 한다(통계청, 2020). 혼인하는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혼은 일정한 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연구에서 이혼은 당사자에게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이설아, 2017; Kamp Dush, 2013) 이혼한 가정의 자녀에게도 우울(Oldenhinkel et al., 2008), 적응의 어려움, 자아효능감의 저하(주소희, 2007) 등을 유발하며 성인기 정신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yrka, Wier, Price, Ross, & Carpenter, 2008). 이처럼 가족 전체에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이혼의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전체 이혼의 43%로 1위를 차지했다(통계청,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성격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 방법을 발전시킴으로써 부부 갈등을 감소시키고 부부 갈등 및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으로 자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asch(1979)는 현대 미국 사회를 ‘자기애의 사회’로 정의하였고 긴장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으로 평가했다. Twenge와 Campbell(2009)도 물질주의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자기애의 급격한 증가를 전염병에 비유하였다. 그 예로 미국에서 20대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유병률이 65세 이상에 비해 3배 높게 나타났다(Stinson et al., 2008).

한국에서도 자기에 관한 논문들의 메타분석 결과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대학생들의 자기에 성향이 증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4).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면, 자기에 성향은 다양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성격적 변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최선우, 이영호, 2015). 정신분석적 이론에서는 자기에 대해 리비도(Libido)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로 인해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 되어 과장된 자기개념과 자기중심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기에 성향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야기하고 관계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연인이나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기에 성향으로 인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장애 진단 체계인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양가적 자아존중감(ambivalent self-esteem)과 병리적 웅대성(pathological grandiosity)을 핵심 요인으로 한다. DSM-5에 기술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칭찬과 주목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욕구, 착취적인 성향, 특권의식, 우월감, 자기중심적 사고, 거만함, 시기심 등의 공격적이고 외현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이론가들은 DSM-5에 제시된 자기애와 유사한 역동과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지녔으나 표면적으로는 다른 자기애적 병리가 존재함을 인식하였고 이에 기반한 연구나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애를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Aktar와 Thompson(1982)는 인지양식,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랑 등 여러 영역에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두 가지 자기에 성향을

기술하였고, Wink(1991)은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자기애 관련 척도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거대성-과시성’과 ‘취약성-민감성’ 요인을 얻어내어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기애의 유형은 Wink(1991)가 구분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이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면적 자기애 모두 거대자기 환상과 특권 의식, 응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상반된다. 외현적 자기애는 DSM-5(2013)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식 수준의 자존감이 매우 높아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것처럼 비춰진다. 더불어 특권 의식, 자기 과시, 거만함이 뚜렷하게 외적으로 관찰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없고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Miller et al., 2011). 그러나 이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높은 자존감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내면에는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높은 욕구가 존재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매력, 성취, 재능 등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대가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비판하거나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거나 높은 수준의 분노를 표현한다. 이로 인해 외현적 자기애자의 대인관계는 지배적이고 적대적인 특징을 보인다(강연우, 2001).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에 반응에 쉽게 상처를 입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수줍고 소심하며 조심

성이 많고 억제되어 있다. 그러나 과민한 행동 양상의 기저에는 “나는 상처받아서도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는 자기애적 과대 자기 환상이 존재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처럼 내면에 자리한 이들의 과시성과 거대 자기 환상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드러나며, 이들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기애적 병리가 숨겨진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타인의 평가에 과민하게 반응하는데, 거절이나 모욕과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신경을 곤두세우는 ‘평가예민성’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최정문, 정남운, 2016).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자의 대인관계는 순응적이고 소극적이면서도 적대적인 면을 동시에 보이는 수동공격적 특성과 회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강연우, 2001; 정남운, 2001).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행복감과 만족감,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정문경, 2016). 결혼만족도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신건강과 심리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연옥, 2016). 이러한 결혼 만족도의 저하는 이혼율 증가, 아동학대, 가족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강혜숙, 김명희, 2012).

외현적 자기애와 연애 혹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민미래(2017)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연애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최선우와 이영호(2015)의 연구에서는 연애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해외의 연구에서는 커플의 낮은 관계 적응을 예측하였으며(Lampkin, Campbell, & Miller, 2015)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ewirtz-Meydan &

Finzi-Dottan, 2018). 반면 외현적 자기에 집단의 관계 만족도가 통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황영주, 2013) 외현적 자기에의 주된 특성인 웅대성-과시성이 관계 만족이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박몽옥, 2014; 우성범, 남숙경, 이승미, 양은주, 2012).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관계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집단을 구분하여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통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하여 외현적 자기에와 관계 만족도 사이의 매개 변인의 존재를 시사한다(최선우, 이영호, 2015; 황영주, 2013). 한편 연인 및 결혼 관계에서 외현적 자기에자들의 상대방이 하는 경험이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연인이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결혼만족도와 관계 적응을 보고한다(Lampkin et al., 2015; Ye, Lam, Ma, & Ng, 2016).

외현적 자기에와 상반되게,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는 부적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정수연(2019)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와 결혼 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최선우와 이영호(2015)의 연구와 황영주(2013)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통제 집단 및 외현적 자기에 집단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더불어 내현적 자기에의 주된 특성인 취약성-과민성이 관계 만족과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몽옥, 2014; 우성범, 남숙경, 이승미, 양은주, 2012). 내현적 자기에는 본인만이 아니라 연인이나 배우자의 관계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허재경(2019)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연인

의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이성관계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김성미, 이수림, 2018). 자기보고된 내현적 자기에와 연인 혹은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도 부적인 상관이 확인되었다(박효경, 김은하, 2017; Ye et al., 2016).

Bradbury, Fincham과 Beach(2000)의 리뷰 연구에 의하면 상대의 행동이나 결혼 생활에서의 사건 등에 대한 지각과 해석, 평가 등의 인지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대한 매개나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배우자의 성격특성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는 실제 성격보다도 결혼만족도를 더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ns, Caspi, & Moffitt, 2000) 이는 종단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Funder, 2001).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으로는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강혜숙, 김영희, 2012)과 유사성(김은지, 박재호, 2010) 등이 있다. 더불어 나와의 유사성, 다정함, 관계에 대한 충실함, 포용적인 태도는 이상적인 연인의 조건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주현덕,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이상적인 대상의 특성으로 여겨지며 관계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여러 특성을 제시한 뒤 배우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기에자의 타인 지각, 타인의 자기에자 지각의 특징이 부부관계에서의 배우자의 태도 및 성격 특성을 지각하고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에 유형에 따른 지각 특성을 살펴보자면, 외현적 자기에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 내의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자기에자에 비해 외현적 자기에

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파트너를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하고 덜 좋아하며(Lamkin, Clifton, Campbell, & Miller, 2014), 타인의 단점에 대한 참을성이 적다(Sherry, Gralnick, Hewitt, Sherry, & Flett, 2014). 특히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대인 관계에서 자기 고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에 민감하여, 상대가 자신의 문제나 단점을 지적할 때 이를 더 예민하게 파악하지만 긍정적인 지지는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인다(Morf & Torchetti, 2018). Brunell과 Campbell의 연구(2011)에 의하면 자신의 파트너를 외현적 자기애자로 지각한 사람들은 그 상대를 비자기애자에 비해 관계에 덜 충실하고 헌신의 수준이 낮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외현적 자기애자 상대방을 자기중심적이고, 기만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지나치게 통제적이며(Brunell & Campbell, 2011) 교묘하게 남을 조종한다고(Campbell, Foster, & Finkel, 2002) 평가했다. 더불어 외현적 자기애자와 사귀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감정적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Foster, Shrira, & Campbell, 2003).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자는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상대방도 그들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보고되었다. 반면 외현적 자기애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립적(Rauthmann, 2012)이거나 긍정적(Carlson, Vazire, & Oltmanns, 2011; Dufner, Rauthmann, Czarna, & Denissen, 2013)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존재한다. 다만 커플은 비슷한 수준의 자기애를 가지는 경향성을 보이며(Ye et al., 2016) 외현적 자기애자의 평가에 자신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Wallace, Grotzinger, Howard, & Parkhill, 2015) 고려하면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평가자의 자기애 수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모두의 외현적 자기애를 함께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부 중 한 명의 자기애가 평가 및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상대방의 자기애 수준을 통제하려고 한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신경질적이고 내향적이라고 지각하는 부정적 지각 편향을 보인다(Lamkin et al., 2014).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우호적인 신경증 환자’로 인식된다(Campbell, Hoffman, Campbell, & Marchisio, 2011; Miller et al., 2017). 높은 수준의 신경증은 본인과 상대방 모두의 연애 만족도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Barelds 2005; Furler, Gomez, & Grob, 2014; Orth, 2013).

자기애 성향자가 배우자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자기애 성향자의 배우자가 그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만족도가 낮은 자기애의 특성과(권석만, 한수정, 2000) 이들의 부정적인 지각 편향(Lamkin et al., 2014), 이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평가(Miller et al., 2017)를 고려하면, 두 유형의 자기애 성향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애와 연애 혹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 관계속에서 자기애 특성이 자신의 배우자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자기애성향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애와 이성관계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미혼 커플의 연애 만족도를 살펴보고 있으며,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성미, 이수립, 2018). 또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내현적 자기애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현적 자기애자의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부부관계, 연인 등 다양한 대상군을 포함하여 하는 연구가 많아 결혼 관계의 부부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다(Lavner, Lamkin, Miller, Campbell, & Karney, 2016). 더불어 해외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DSM-5에서 이야기하는 외현적 특징의 자기애만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내현적이고 취약한 자기애자의 관계 양상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Casale, Fioravanti, Baldi, Flett, & Hewitt, 2020; Ye et al., 2016).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커플 중 한 명이 보고한 단편적 자료를 분석해 이성 관계의 상호 역동적인 관계 파악에는 한계를 보인다(정지은, 손은정, 2016). 연인이나 부부와 같은 밀접한 양자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 행동, 인지 등과 같은 개인 특성이 자신의 친밀감이나 관계 만족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친밀감이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크다(Feeney, 2002). 이러한 상호의존적 특성을 고려하여 커플 자료에 대한 분석은 한 쌍을 분석의 단위로 삼아야 한다(Kenny, 1995). 이러한 쌍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부부 대상의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며, 자기애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연구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전부이다(박성진, 2019; 박효경, 김은하, 2017).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박성진(2019)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는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성의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과 연인의 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박효경과 김은하(2017)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자신의 내현적 자기애가 자신의 관계 만족도를 낮추었으나 남성의 관계 만족도만이 상대방의 내현적 자기애 수준에 영향을 받았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커플의 결혼만족도 하락에 여성의 외현적 자기애가 더 큰 영향을 미친 연구(Lavner et al., 2016)와 남성의 외현적 자기애가 아내의 자기애보다 큰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Ye et al., 2016)가 나타나 자기애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어 성별에 따른 쌍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고, 결혼만족도는 남성이 유의하게 높은 연구 결과(박성진, 2019; 박효경, 김은하, 2017)를 통해 자기애 수준과 관계만족도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도 해(김미선, 2014; 황영주, 2013) 본 연구에서 성차를 확인하고자 한다.

상호 의존적인 쌍의 구성원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Kenny (1996)가 제안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이 있다. APIM은 관계 내에서 개인의 요인이 스스로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자신의 요인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Actor effect)라고 부르며, 자신의 요인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Ledermann, Macho, &

Kenny, 2011). 본 연구에서는 APIM에 매개변인을 추가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PIMeM: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Ledermann et al., 2011). 이 모형은 독립 변인에서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해 미치는 간접 효과 모두를 볼 수 있으며, 한 개인의 독립 변인이 자신과 상대방의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 변인이 자신과 상대방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IMeM을 통하여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배우자 평가,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밝히고 부부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결혼 만족도의 수준에 성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결혼 만족도, 배우자 평가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성별에 따른 자기애 성향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배우자 평가의 매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현재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 연한, 결혼상태(초혼, 재혼 등), 자녀의 유무 등의 제한은 두

지 않았다. 2015년 7월과 8월 두 달간 기혼 여성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을 통한 임의 표집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확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주로 한 명이 설문을 하고 제출한 뒤 설문 링크를 배우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연구의 목적, 내용, 주의사항 및 익명성에 대한 안내가 함께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음료 쿠폰이 제공되었고 원하는 경우에는 설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부부 중 한 명이 미응답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13쌍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3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주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5~72세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성이 37.6세(표준편차 5.4), 여성이 35.2세(표준편차 4.6)이었다. 평균 결혼 기간은 5.9년(표준편차 4.9)으로 74.1%의 참여자가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95.8%의 참여자가 전문대 졸업 이상이며 91.3%의 참여자가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측정 도구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

외현적 자기애의 측정을 위해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황순택(1995)이 DSM-III-R의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대한 것이다.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명	빈도(명)		비율(%)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연령	20대	6	2.3	4.2
	30대	190	72.2	85.5
	40대	58	22.1	8.7
	50대	7	2.6	0.8
	60대 이상	2	0.8	0.8
교육 수준	고졸이하	12	4.6	3.8
	초대졸	23	8.7	14.4
	대졸	171	65.0	57.8
	대학원 이상	57	21.7	24.0
결혼 기간	0~5년	167	63.5	
	6~10년	73	27.5	
	11~20년	19	7.5	
	20년 이상	4	1.5	
자녀 여부	없음	68	25.9	
	1명	105	39.9	
	2명	82	31.2	
	3명 이상	8	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6	55.5	
	외벌이	117	45.5	
가정 내 월수입	200이하	3	1.1	
	200~300이하	20	7.6	
	300~400이하	61	23.2	
	400~500이하	51	19.4	
	500이상	128	48.7	

Disorder Scale: NPDS)는 적응에 어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자기에 성격을 측정한다는 연구결과 (한수정, 1999)를 참조하여, 부적응적인 자기에 의 측정 도구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

였다. 이 척도에는 다른 성격장애에도 해당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유척도와, 자기에 적 성격장애에만 해당되는 특성으로 구성된 비공유척도 두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성격장애와의 변별진단보다는 자기에적 성격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23점에서 120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성 성격 장애 성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는 4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한수정이 수정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Cronbach's a* 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 는 .89이었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145)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hkta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5점 척도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이 강할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는 요인분석을 통해 5개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2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3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CNS145)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각 하위요인의 명칭은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총 27문항이다. 점수범위는 28점에서 12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Cronbach's a*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CNS145)의 *Cronbach's a* 는 .94

이었다.

연애대상평가 척도(MALPS)

연인으로서의 자신을 평가하는 척도('Me As a Love Partner Scale'-MALPS)다. MALPS는 9점 척도로 기본적으로 6개의 하부요인(각 요인별 4쌍)으로 구성된 24개의 반대말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하부요인은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개방성이다(주현덕, 2010).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① 다정함 요인은 다정하고 로맨틱하며 자상하고 성격이 원만함을 의미하며, ② 유사성 요인은 상대와 수준이 맞으며, 상대가 나와 비슷하고, 동질적이고, 만족스러움을 의미하고 ③ 집중성 요인은 헌신적이며, 관계에 열중하고 성실하며 진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허용성 요인은 포용적이며 너그럽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며 이해심 많다는 것을, ⑤ 유능함의 요인에서는 독립적이며 능력이 있고, 합리적이며 똑똑한 것을 의미하며, ⑥ 개방성 요인은 진보적이고 보다 외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성적으로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총 24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48점에서 210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개방성 등의 연애대상 및 배우자로서의 긍정적인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의 '연인'을 '남편/아내'로, '나' 혹은 '상대'를 '배우자'로 바꾸어 실시하여 아내는 남편을 평가하고 남편은 아내를 평가하였다. 주현덕(2010)이 보고한 *Cronbach's a* 는 .85이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하위 요소를 6가지로 투입한 경우 적합도가 저하되어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를 통해 하위요인을 3가지로 재구성한 뒤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K-MSI)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 예비 검사를 거쳐 최종문항을 선정하여 만든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사용하였다. K-MSI는 14개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예, 아니오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여 문제나 불만족이 아닌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2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봄을 의미한다. 권정혜, 채규만의 연구(1999)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므로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를 통해 하위요인을 3가지로 묶은 뒤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SPSS 22.0을 이용하여 주요변인들(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에, 남편과 아내의 내현적 자기에, 배우자 평가, 결혼 만족도)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으며, 첨도의 절대값도 7을 넘지 않으면 정상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West, Finch, & Curran, 1995). 또한, T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 성별차이를 확인하였고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AMOS 20.0을 이용하여 제안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t Mediation Model; APIMeM)을 검증하였다(Ledermann et al., 2011).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은 상대방의 독립 변인을 통제한 채 자신의 독립 변인이 자신과 상대방의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어 상호적 영향력을 보는 쌍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Campbell & Kashy, 2002). 본 연구에서는 부부 양쪽의 배우자 평가가 자기에와 결혼 만족도를 매개하는지 보기 위해 APIM에 매개변인을 추가한 APIMeM을 사용했다. APIM을 이용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다층 모형 등이 있는데, 부부와 같이 쌍 구성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distinguishable dyadic data)에는 구조방정식이 가장 쉽고 간명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정방정식 모델에 기초하여 APIMeM모형을 실시하였다(Kenny et al., 2006).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내현적 자기에의 취약성/과민성이 낮으나 내현적 자기에는 내적인 웅대성과 거대자기 환상을 외현적 자기에와 공유하고 있기에(권석만, 한수정, 2000) 두 가지 유형의 자기에가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 한 모델에 두 가지 자기에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각자 매개 모델을 사용하여 외현적 자기에의 주된 특징인 웅대성/자기 중심성과 내현적 자기에의 취약성/과민성이 배우자 평가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기법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기애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상의 변인인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기법을 실시하였다(배병렬, 2011).

결 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배우자 평가와 결혼 만족도의 표본과 표준 편차를 구한 뒤 성별에 따른 차이 유무 확인을 위해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내현적 자기애 $t = 5.78, p < .001$ 는 여자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결혼 만족도 $t = -4.20, p < .001$ 은 남자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외현적 자기애와 배우자 평가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 1은 일부만 지지되었다.

주요 변인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배우자 평가, 이성관계 만족도의 왜도와

첨도를 계산해 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였다(표 2).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댓값이 2보다 작고 첨도 절댓값은 7보다 작아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켰다(West, Finch, & Curran, 1995). 더불어 주요 변인들을 상관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는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 $r = .33, p < .01$ 및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 $r = .32, p < .01$ 와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남편의 결혼 만족도 $r = -.23, p < .01$ 와 아내의 결혼 만족도 $r = -.12, p < .05$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 외 변인들과는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는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와는 정적 상관 $r = .15, p < .05$ 를 보였으나 남편의 배우자 평가 $r = -.24, p < .01$ 와 남편의 결혼 만족도 $r = -.33, p < .01$, 아내의 배우자 평가 $r = -.21, p < .01$, 아내의 결혼 만족도 $r = -.28, p < .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와 아내의 내현적 자기애 간의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배우자 평가는 아내의 내현적 자기애 $r = -.27, p < .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남편의 결혼 만족도 $r = .41, p < .01$ 와 아내의 배우자 평가 $r = .31, p < .01$, 아내의 결혼 만족도 $r = .30, p$

표 2. 주요 변인들의 성별 차이

	남자 M(SD)	여자 M(SD)	<i>t</i>
외현적 자기애	64.42(16.77)	62.16(15.66)	-1.60
내현적 자기애	67.94(19.69)	77.49(18.20)	5.78***
배우자 평가	139.12(30.92)	143.94(35.40)	1.66
결혼 만족도	17.52(5.14)	15.49(5.97)	-4.20***

*** $p < .001$

표 3.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1. 남편 외현적 자기에	1							
2. 남편 내현적 자기에	.33**	1						
3. 남편의 배우자 평가	.014	-.24**	1					
4. 남편의 결혼 만족도	-.23**	-.33**	.41**	1				
5. 아내 외현적 자기에	.32**	.15*	.02	-.18**	1			
6. 아내 내현적 자기에	.10	.12	-.27**	-.22**	.33**	1		
7. 아내의 배우자 평가	.002	-.21**	.31**	.27**	.09	-.10	1	
8. 아내의 결혼 만족도	-.12*	-.28**	.30**	.60**	-.28**	-.37**	.43**	1
왜도	.28	.21	-.07	-1.72	.04	-.14	-.21	-.95
첨도	-.15	-.43	-.65	2.26	-.28	-.20	-.93	-.18

* $p < .05$, ** $p < .01$,

< .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편의 배우자 평가와 아내의 외현적 자기에의 유의한 상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편의 결혼 만족도는 아내의 외현적 자기에 $r = -.18, p < .01$ 와 아내의 내현적 자기에 $r = -.22, p < .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아내의 배우자 평가 $r = .27, p < .01$ 와 아내의 결혼만족도 $r = .60, p < .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내의 외현적 자기에에는 아내의 내현적 자기에 $r = .33, P < .01$ 와는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아내의 결혼 만족도 $r = -.28, p < .01$ 와는 부적 관계였으며 아내의 배우자 평가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의 내현적 자기에에는 아내의 결혼 만족도 $r = -.37, p < .01$ 와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나 아내의 배우자 평가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 아내의 배우자 평가는 아내의 결혼 만족도와 정적 상관 $r = .43, p < .01$ 을 보였다. 자기에의 유형과 성별에 따

라 자기에와 배우자 평가, 결혼만족도의 상관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 가설 2는 일부 지지되었다.

외현적 자기에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서 배우자 평가의 매개효과

외현적 자기에와 결혼 만족도 사이에서 배우자 평가가 매개변인으로 포함된 연구모형 APIMeM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자유도 120에서 233.014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는 .963으로 나타났으며, TLI는 .953으로 모두 .90보다 높게 나왔고 RMSEA의 경우 .06으로 .08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경로 모형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부의 외현적 자기에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외현적 자기에에는 자신의

표 4. 외현적 자기애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분석 결과

효과		B	SE	95%CI	
				Lower	Upper
<i>남편 자기 효과</i>					
자기-자기 IE	남편 외현적 자기애 → 남편 배우자 평가 → 남편 결혼 만족도	-.003	.009	-.021	.014
상대방-상대방 IE	남편 외현적 자기애 → 아내 배우자 평가 → 남편 결혼 만족도	-.005	.004	-.016	.000
직접 효과	남편 외현적 자기애 → 남편 결혼 만족도	-.060	.019	-.098	-.023
<i>아내 자기 효과</i>					
자기-자기 IE	아내 외현적 자기애 → 아내 배우자 평가 → 아내 결혼 만족도	.019	.015	-.008	.050
상대방-상대방 IE	아내 외현적 자기애 → 남편 배우자 평가 → 아내 결혼 만족도	-.003	.005	-.016	.005
직접 효과	아내 외현적 자기애 → 아내 결혼 만족도	-.119	.025	-.172	-.075
<i>남편 상대방 효과</i>					
자기-상대방 IE	남편 외현적 자기애 → 남편 배우자 평가 → 아내 결혼 만족도	-.001	.003	-.010	.004
상대방-자기 IE	남편 외현적 자기애 → 아내 배우자 평가 → 아내 결혼 만족도	-.014	.009	-.034	.003
직접 효과	남편 외현적 자기애 → 아내 결혼 만족도	-.006	.015	-.035	.024
<i>아내 상대방 효과</i>					
자기-상대방 IE	아내 외현적 자기애 → 아내 배우자 평가 → 남편 결혼 만족도	.007	.006	-.001	.024
상대방-자기 IE	아내 외현적 자기애 → 남편 배우자 평가 → 남편 결혼 만족도	-.008	.014	-.001	.021
직접 효과	아내 외현적 자기애 → 남편 결혼 만족도	-.059	.024	-.108	-.014

IE=간접 효과(indirect effect)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B = -.060, 95% CI[-.098, -.023] 상대방의 결혼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기 효과만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아내의 결혼 만족도 B = -.119, 95% CI[-.172, -.075] 와 남편의 결혼 만족도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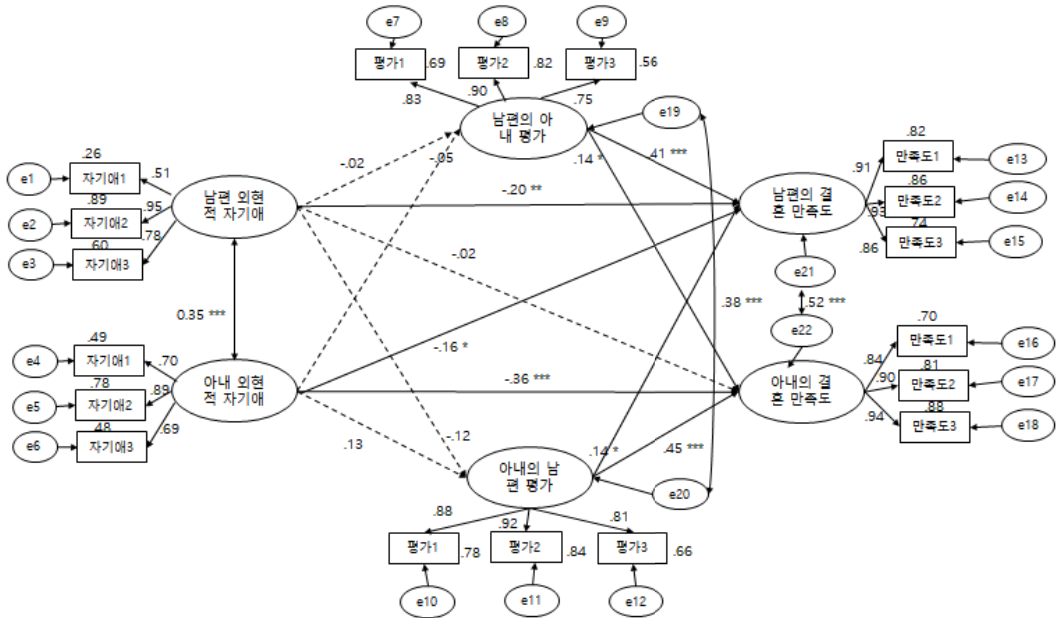


그림 1. 외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표준화 계수)와 배우자 평가의 매개 효과
* $p < .05$, ** $p < .01$, *** $p < .001$

-.059, 95% CI[-.108, -.014] 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확인되었다. 배우자 평가의 매개 효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나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만족도가 저하된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본인과 상대방의 배우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서 배우자 평가의 매개효과

부부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매개효과를 반영한

APIMeM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자유도 119에서 212.835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는 .971로 나타났으며, TLI는 .962로 모두 .90보다 높게 나왔고 RMSEA의 경우 .055로 .08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Hair et al, 2009). 전반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 만족도, 배우자 평가와 관련된 APIMeM 모형은 데이터를 비교적 양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편의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는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 $B = -.084$, 95% CI[-.126, -.039] 을 미쳤으며 자신의 배우자 평가가 자신의 결혼 만족도를 매개 $B = -.025$, 95% CI[-.053, -.010]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방 효과에서는 남

표 5.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분석 결과

효과		B	SE	95%CI	
				Lower	Upper
<i>남편 자기 효과</i>					
자기-자기 IE	남편 내현적 자기애 → 남편 배우자 평가 → 남편 결혼 만족도	-.025	.010	-.053	-.010
상대방-상대방 IE	남편 내현적 자기애 → 아내 배우자 평가 → 남편 결혼 만족도	-.006	.005	-.022	.001
직접 효과	남편 내현적 자기애 → 남편 결혼 만족도	-.084	.023	-.126	-.039
<i>아내 자기 효과</i>					
자기-자기 IE	아내 내현적 자기애 → 아내 배우자 평가 → 아내 결혼 만족도	-.014	.012	-.042	.006
상대방-상대방 IE	아내 내현적 자기애 → 남편 배우자 평가 → 아내 결혼 만족도	-.003	.007	-.021	.008
직접 효과	아내 내현적 자기애 → 아내 결혼 만족도	-.137	.030	-.200	-.081
<i>남편 상대방 효과</i>					
자기-상대방 IE	남편 내현적 자기애 → 남편 배우자 평가 → 아내 결혼 만족도	-.002	.005	-.017	.006
상대방-자기 IE	남편 내현적 자기애 → 아내 배우자 평가 → 아내 결혼 만족도	-.023	.011	-.057	-.008
직접 효과	남편 내현적 자기애 → 아내 결혼 만족도	-.046	.019	-.087	-.011
<i>아내 상대방 효과</i>					
자기-상대방 IE	아내 내현적 자기애 → 아내 배우자 평가 → 남편 결혼 만족도	-.004	.004	-.016	.001
상대방-자기 IE	아내 내현적 자기애 → 남편 배우자 평가 → 남편 결혼 만족도	-.034	.013	-.061	-.015
직접 효과	아내 내현적 자기애 → 남편 결혼 만족도	-.070	.028	-.126	-.013

IE=간접 효과(indirect effect)

편의 내현적 자기애가 아내의 결혼 만족도 아내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B = -.023, B = -.046, 95% CI[-.087, -.011] 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아내의 배우자 평가를 경유하여 아내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B = -.023, 95% CI[-.057, -.008] 가 나타났다. 아내의 자기 효과를 살펴보면, 아내의 내현적 자기애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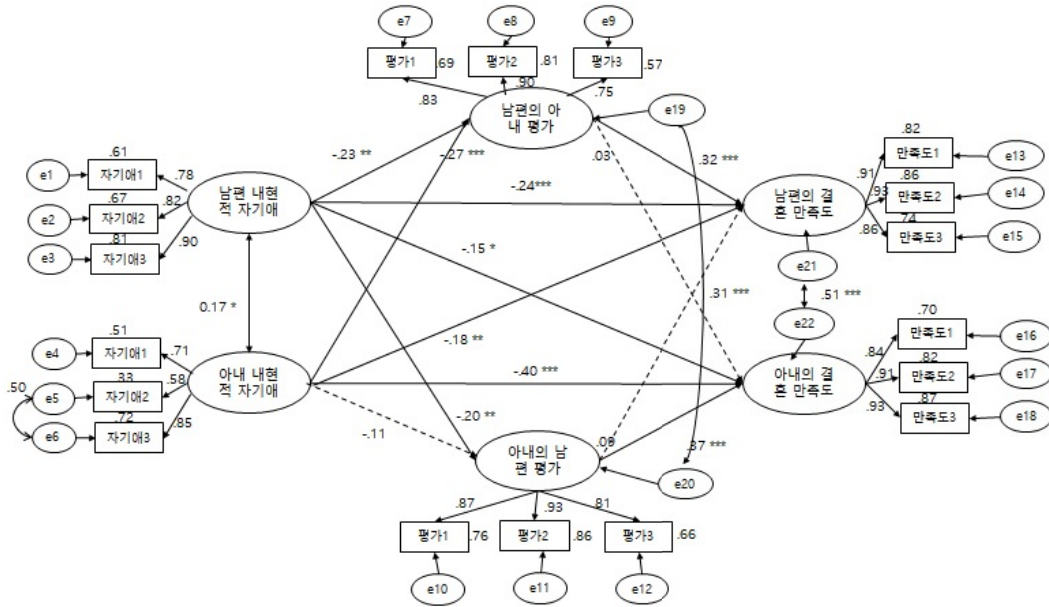


그림 2. 외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표준화 계수)와 배우자 평가의 매개 효과
* $p < .05$, ** $p < .01$, *** $p < .001$

내의 결혼 만족도 $B = -.137$, 95% CI[-.200, -.081] 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배우자 평가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내의 내현적 자기애가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에서는, 직접효과 $B = -.070$, 95% CI[-.126, -.013] 와 남편의 배우자 효과가 매개하는 간접효과 $B = -.034$, 95% CI[-.061, -.015] 가 유의했으며, 아내 배우자 평가의 간접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 수준은 본인과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나아가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며 이는 본인의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가 상승할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평가도 저하되며 이로 인해 아내의 결혼 만족도도 낮

아진다. 아내의 내현적 자기애는 아내와 남편의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내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남편도 아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남편의 결혼 만족도도 낮아진다. 성별과 자기애 유형에 따른 상이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매개 효과가 확인되어 가설3과 4는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6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배우자평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 성별에 따른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수준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부가 주고받는 상

호역동을 중심으로 두 가지 유형의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고, 유형별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배우자평가, 결혼 만족도 점수의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현적 자기애와 배우자 평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 만족도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여자의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남자보다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박성진, 2019; 박효경, 2017)와 일치한다. 박성진(2019)의 연구에서 여자들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척도 중에서도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의 점수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내향적이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외부 평가 및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반면 남자가 관계에 더 만족하는 점은 재미교포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수연(2019)의 연구 및 미혼 커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애만족도 결과(박성진, 2019; 박효경, 201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타인의 반응이나 행동보다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행동 방식이 관계 만족도와 관련있는 반면, 여성은 관계 만족도가 타인의 시선, 평가, 행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Hook, Gerstein, Detterich, & Gridley, 2003). 결혼 관계에서 아내가 실제적인 문제 수준을 남편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관계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연구(Floyd & Markman, 1983)와 부부 상담에서도 아내가 결혼의 불만족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며 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한다는 선행연구(Miller, Yorgason, Sandberg, & White, 2003)의 결과를 고려하면, 남편보다는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실제 부부관계의 질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부부상담 시 남녀가 보고하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할 때 이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문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남녀의 외현적 자기애는 유의한 상관관을 보여 부부는 비슷한 수준의 외현적 자기애를 가지는 경향성이 시사되었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상대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여러 선행 연구(Campbell, 1999; Keller et al., 2014; Lamkin, Campbell, & Miller,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부부간의 내현적 자기애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애자들과 다르게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에 대한 동종선호(homophily)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Lamkin et al., 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남녀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상관관을 보였는데, 이는 연인이나 부부 관계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 연구(Casale et al, 2020; Ye et al, 2016)와 동일한 결과이다. 주현덕과 장근영(2006)이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평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남녀의 배우자 평가도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남편과 아내처럼 친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는 본인의 결혼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켰다. Casale 등 (2020)의 연구와 Gewirtz-Meydan과 Finzi-Dottan (2018)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자기애는 자기효과만 나타났고 아내의 자기애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모두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외현적 자기애자 본인의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만 남편은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의 영향을 받았으나 아내는 남편의 자기애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외현적 자기애의 특징인 자신만만하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남성에게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겨지기에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은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여성의 자기애는 특히 부정적으로 여겨지기에 관계에 더 파괴적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가 시간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가파른 저하, 관계 문제 증가 등을 더 예측했다(Ye et al., 2016).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기혼 내담자의 상담 시 이들이 본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부부관계에 불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외현적 자기애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현적 자기애자 여성에게 결혼생활에서의 문제가 더 심할 수 있으며 남편도 이러한 성향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넷째, 외현적 자기애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유의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남녀 모두 외현적 자기애와 배우자 평가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민진과 정진복(2017)의 연구에 의하면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타인의 반응을 중립적이기보다는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두 가지 극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면 자신들도 배려하고 양보한다고 지각하나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극단을 오가는 이들의 인지양식으로 인해 이들이 평가한 배우자의 특성도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배우자에게 지지반응을 적게 하는데, 이들의 배우자는 상대의 지지반응을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인지편향성을 나타냈다는 선행연구(Morf & Torchetti, 2018) 결과를 고려해봤을 때 외현적 자기애자들이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이들이 관계에서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고 가정하면, 갈등 상황 등의 전제가 주어지지 않은 일반적인 모습의 평가는 우호적인 태도에 기반하여 내려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된다(Lamkin et al., 2014; Morf & Torchetti, 2018; Patalano, 1997). 반면 그들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으나(Brunell & Campbell, 2011; Campbell, Foster, & Finkel, 2002; Foster, Shrira, & Campbell, 2003), 중립적(Rauthmann, 2012)이거나 긍정적(Carlson, Vazire, & Oltmanns, 2011; Dufner, Rauthmann, Czarna, & Denissen, 2013)인 연구 결과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타인 평가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타인의 평가 모두 자기애 성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바, 이에 기여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는 남녀 모두의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본인(박효경, 김은하, 2017; 최선우, 이영호, 2015)과 상대방(김성미, 이수림, 2018; 허재경, 2019)의 낮은 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기존 연구들에 의해 지지된다. 배우자 평가를 통한 매개효과는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의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배우자 평가를 저하시켜 본인의 결혼 만족도를 낮출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해서 배우자도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한다. 반면 아내의 높은 내현적 자기애는 남편의 부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어 결과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남편의 만족수준을 낮추지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관계 내에서 남자는 상대방보다 자신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받고 아내는 타인의 반응, 행동 등 타인의 주로 영향을 받으며(Hook et al., 2003), 아내가 관계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에(Floyd & Markman, 1983) 남편은 자신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영향으로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내는 상대의 특성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으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아질 뿐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에게 배우자로서 단점이 두드러져 결혼에 불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황영주(2013)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연인으로서의 자신을 평가하였는데 허용성, 유능함, 개방성이 통제 집단보다 낮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불만족감을 호소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내담자의 상담 시 본인의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만족감과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의 내현적 자기애 특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배우자의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은 부부상담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남편이 아내보다 다양하게 받으므로 이를 고려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저하되는데,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남녀 상관없이 자신과 배우자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부부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태도나 성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아내는 남편을 평가할 때 남편의 성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나 남편은 자신의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받아 편향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가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자기애와 관계만족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커플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쌍 단위로 표본을 모집하여 쌍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커플의

자기애가 본인과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모두 확인하여 부부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배우자평가, 결혼만족도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부관계 역동을 살펴보았다. 이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성별에 맞춘 상담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내현적 자기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현적 자기애자가 대인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모두를 변인으로 사용하여 외현적 자기애자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살펴볼 뿐 아니라, 자기애 유형에 따른 차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 결혼 기간이 10년 미만이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며 결혼 기간이 증가하고,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고려하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골고루 포함하거나 노년층 등 본 연구에 적게 참여한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자기애 성향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설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참여하고 배우자에게 설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며 서로 호의적인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자기애성향자의 결혼 관계 내에서의 역기능적인 모습이 더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 선정과 설문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배우자 평가도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을 탐색한다면 자기애자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숙, 김영희. (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

- 과. 상담학연구, 13(6), 2861-2880.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감정 서울: 학지사.
- 권정혜, 채규만. (1999). 임상: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1.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 123-139.
- 김미선. (2014).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성관계 불만족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미, 이수림. (2018).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186-201.
- 김은지, 박재호. (2010). 부부간 유사성 및 일치도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03-423.
- 박몽옥. (2014). 자기애와 부부간 헌신의 관계: 투자모델의 적용.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미래. (2017). 성인애착과 외·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진. (2019). 초기 성인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효경, 김은하. (2017). 미혼커플의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8(6), 203-217.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1001-1017.
-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이차원적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 양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87-101.
- 이민진, 정진복. (2017).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양상: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119-146.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8.
- 이철아. (2017): 이혼이 성인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 (2008). 상담일반: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문경. (2016). 용서, 헌신, 부정적 갈등대처양식, 결혼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 가족과 문화, 28(2), 249-278.
- 정병완, 홍혜영. (2015). 내현적 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감과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83-201.
- 정수연. (2019). 재미 한인 기혼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412-426.

- 정연옥. (2016). 결혼 만족도와 가족 친밀감이 기혼자의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우울, 적의감 및 신체화 증상. *한국가족복지학*, 21(4), 609-628.
- 정지은, 손은정. (2016).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의 매개역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7(5), 399-420.
- 주소희. (2007). 부모이혼과 자녀의 지각: 부모 자녀관계와 자아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가족복지학*, 20, 107-136.
- 주현덕. (2010). 연애 대상 평가 척도(MALPS: Me as a love partner scale)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현덕, 장근영. (2006). 한국 대학생의 연인평가와 연애타도 연구: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 39-54.
- 최혜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선우, 이영호. (2015). 이성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에 따른 갈등대처방식, 정서 및 관계 만족도의 차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간 이해*, 36(1), 21-40.
- 최정문, 정남운. (2016).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47-64.
- 통계청 (2018). 2017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 통계청. 보도자료 (2020. 3. 19.). 2019 년 혼인·이혼 통계.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경. (2019). 지각된 연인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연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순택, 오경자, 최정훈.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255-271.
- 황영주. (2013). 자기애 성향자의 연애타도가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 Barelds, D. P. (2005). Self and partner personality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Published for the European Associ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y*, 19(6), 501-518.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rown, R. P. (2004). Vengeance is mine: Narcissism, vengeance, and the tendency to forg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6), 576-584.
- Brunell, A. B., & Campbell, W. K. (2011). Narcissism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Campbell, W.K., & Miller, J. D. (Eds.),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 disorders: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and treatments*, 344-350. Hoboken, NJ : John Wiley & Sons, Inc..
- Campbell, W. (1999).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54 - 1270.
- Campbell, W. K., & Foster, C. A. (2002). Narcissism and commit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4), 484-495.
- Campbell, W. K., Foster, C. A., & Finkel, E. J. (2002). Does self-love lead to love for others? A story of narcissistic game pla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340-354.
- Campbell, W. K., Hoffman, B. J., Campbell, S. M., & Marchisio, G. (2011). Narcissism in organizational context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1(4), 268-284.
- Campbell, L., & Kashy, D. A. (2002). Estimating actor, partner, and interaction effects for dyadic data using PROC MIXED and HLM: A user - friendly guide. *Personal Relationships*, 9(3), 327-342.
- Carlson, E. N., Vazire, S., & Oltmanns, T. F. (2011). You probably think this paper's about you: Narcissists' perceptions of their personality and repu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185-201.
- Casale, S., Fioravanti, G., Baldi, V., Flett, G. L., & Hewitt, P. L. (2020). Narcissism,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from a dyadic perspective: Narcissis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Self and Identity*, 19(8), 948-966.
- Dufner, M., Rauthmann, J. F., Czarna, A. Z., & Denissen, J. J. (2013). Are narcissists sexy? Zeroing in on the effect of narcissism on short-term mate appe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7), 870-882.
- Feeney, J. A. (2002). Attachment, marital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diary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9(1), 39-55.
- Floyd, F. J., & Markman, H. J. (1983). Observational biases in spouse observation: Toward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3), 450-457.
- Foster, J. D. (2017). *Grandiose narcissism, vulnerable narcissism, and the investment model of commitment* (Unpublished raw data). Mobile, AL: University of South Alabama.
- Foster, J. D., & Brunell, A. B. (2018). Narcissism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Hermann, A. D., Brunell, A. B., & Foster, J. D. (Eds.), *Handbook of trait narcissism* (pp. 317-326). Cham: Springer.
- Foster, J. D., Shrira, I., Campbell, W. K., & Loggins, B. (2003). The trajectory of satisfaction, excitement, and emotional intimacy during relationships with narcissistic people. In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Atlanta, GA*.
- Funder, D. C. (1997). *The personality puzzle*. (2nd, Ed.). New York: Norton
- Furler, K., Gomez, V., & Grob, A. (2014). Personality perceptions and relationship

- satisfaction in coup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0, 33-41.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ir, J., Black, W., Babin, B., & Anderson, R.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London: Prentice Hall.
- Hook, M. K., Gerstein, L. H., Detterich, L., & Gridley, B. (2003). How close are we? Measuring intimacy and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4), 462-472.
- Gewirtz-Meydan, A., & Finzi-Dottan, R. (2018). Narcissis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from a dyadic perspectiv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aggression. *Marriage & Family Review*, 54(3), 296-312.
- Gilbert, L. R., Dewart, C. N., Haak, E. A., & Widiger, T. (2014). Narcissism in romantic relationships: A dyadic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1), 25 - 50.
- Kamp Dush, C. M. (2013). Marital and cohabitation dissolution and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in fragil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1), 91-109.
- Keller, P. S., Blincoe, S., Gilbert, L. R., Dewart, C. N., Haak, E. A., & Widiger, T. (2014). Narcissism in romantic relationships: A dyadic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1), 25-50.
- Kenny, D. A. (1995). The effect of non-independence on significance testing in dyadic research. *Personal Relationships*, 2(1), 67-75.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Lamkin, J., Campbell, W. K., & Miller, J. D. (2015). An exploration of the correlate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in romantic relationships: Homophily, partner characteristics, and dyadic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9, 166-171.
- Lamkin, J., Clifton, A., Campbell, W. K., & Miller, J. D. (2014). An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s of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2), 137-145.
- Lavner, J. A., Lamkin, J., Miller, J. D., Campbell, W. K., & Karney, B. R. (2016). Narcissism and newlywed marriage: Partner characteristics and marital trajectorie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7(2), 169-179.
- Ledermann, T., Macho, S., &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 Masterson, J. F. (1988). *The search for the real self: Unmasking the personality disorders of our age*. New York: Taylor & Francis.
- Miller, J. D., Hoffman, B. J., Gaughan, E. T., Gentile, B., Maples, J., & Campbell, W. K. (2011).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A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9(5), 1013 - 1042.

- Miller, J. D., Lynam, D. R., Hyatt, C. S., & Campbell, W. K. (2017). Controversies in narcissism.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3(1), 291-315.
- Miller, R. B., Yorgason, J. B., Sandberg, J. G., & White, M. B. (2003). Problems that couples bring to therapy: A view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5), 395-407.
- Morf, C., & Torchetti, L. (2018). Accuracy and bias in perceptions of partner behavior in relationships of narcissists. *International Conference: "Between Narcissism and Entitlement-Self-enhancement i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Warsaw, Poland.
- Ogrodniczuk, J. S., Piper, W. E., Joyce, A. S., Steinberg, P. I., & Duggal, S. (2009). Interpersonal problems associated with narcissism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9), 837-842.
- Oldehinkel, A. J., Ormel, J., Veenstra, R., & Verhulst, F. C. (2008). Parental divorce and offspring depressive symptoms: Dutch developmental trend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2), 284-293.
- Orth, U. (2013). How large ar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ersonality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shared method vari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10), 1359-1372.
- Patalano, F. (1997).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80(1), 289-290.
- Rauthmann, J. F. (2012). The Dark Triad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ocial consequences of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4), 487-496.
- Reidy, D. E., Foster, J. D., & Zeichner, A. (2010). Narcissism and unprovoke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6(6), 414-422.
- Robins, R. W., Caspi, A., & Moffitt, T. E. (2000). Two personalities, one relationship: Both partners' personality traits shape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51-xxx.
- Sherry, S. B., Gralnick, T. M., Hewitt, P. L., Sherry, D. L., & Flett, G. L. (2014). Perfectionism and narcissism: Testing unique relationships and gender dif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1, 52-5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9).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New York: Free Press
- Tyrka, A. R., Wier, L., Price, L. H., Ross, N. S., & Carpenter, L. L. (2008). Childhood parental loss and adult psychopathology: Effects of loss characteristics and contextual fac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38(3), 329-344.
- Wallace, H. M., Grotzinger, A., Howard, T. J., & Parkhill, N. (2015). When people evaluate others, the level of others' narcissism matters less to evaluators who are narcissistic. *Social*

-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7), 805-813.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Ye, S., Lam, Z. K. W., Ma, Z., & Ng, T. K. (2016). Differential relations of narcissism and self esteem to romantic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perception discrepanc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4), 374-384.
- 원고접수일 : 2020. 11. 27.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2. 02.
게재결정일 : 2021. 02. 06.

Narcissism, Partner Evalu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from a Dyadic Perspective

Sung-Mi Lee

Young-Ho Lee

Catholic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partner evaluat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trait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se associations in 263 nonclinical heterosexual married couples. The direct actor effect of men's overt narcissism(ON) on men's marital satisfaction emerged, as well as the direct partner effect of women's ON on men's marital satisfaction. Women's ON influenced their own satisfaction. Mediated actor effects were only found in men's covert narcissism(CN). A mediated partner effect was discovered in both men and women's CN. Men's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heir own CN and that of their partner. Women who had high scores in CN and their partners reported lower marital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Over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Marital satisfaction, Partner evaluation, APIMeM